

# 시조 한편으로 광복의 의미 되새기다

제75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광복의 의미와 뜻을 되새기는 우리 순수 민족문화인 시조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화제가 되고 있다.



전북에서 한국 정형시조 전시회 포스터 고유의 정형시조 시조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이선녀 시조시인이 이끄는 한국시조아카데미 회원들이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문치전시관에서 두 번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제 강점기 지뫼고 억눌렀던 시조의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이선녀 시조시인과 12명의 회원들이 평소 갖고 있던 시조 40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 뜻 깊다는 평가다.



시조아카데미 회원들  
삼례문화예술촌서  
정형시조 전시회

이선녀 시인 "끊임없이  
시조의 언어로 향해가고파"

후원측 "광복절의 감동을  
시조 통해 힐링할수 있길"

← 이선녀 시인

학계,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 12명의 회원들은 수년간 시조수업을 받고 문단에 데뷔 하는 등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동시조 시인으로 알려진 유응교 전북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특별 초대패 축사와 함께 '폭포', '석류' 등 동시조 2편도 특별 전시될 예정이다. 시조는 일제에 의해 말살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정형시이다.

늦각이로 문단에 데뷔한 이선녀 시인은 척박한 시조 문학의 풍토에서 시조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감성 에듀테이너로 알려져 있다.

이선녀 시인은 "수년간 시조와 함께 동고동락한 회원들과 함께 2번째 전시회를 개최하게 돼 더없이 기쁘다"고 강조하고 "아직은 다듬고 걸어가야 할 길이 멀지만, 앞으로도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시조의 언어와 몸짓으로 향해 가고 싶다"며 변함없는 시조사랑을 불태웠다.

한편,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민족 정형시조 시조전시회를 후원한 삼례문화예술촌 심기영, 심기희 공동대표는 "75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의 감동을 시조를 통해 전 국민들이 다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전시회를 후원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시조전시회 뿐만 아니라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동참할 수 있는 여러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것"이라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 '2020 전북공연예술페스타'

유튜브 통해 온라인으로 열려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2020 전라북도공연예술페스타(JBPAF)'를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공연예술분야 창작 작품 제작지원을 통해 도내 예술단체의 창작의욕 고취 및 우수 창작 작품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단은 올 초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7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전라북도공연예술페스타는 통합 발표회 형식의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에 진행되는 모든 공연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박찬영 문예진흥팀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을 넘어 전국 관객들이 전라북도 우수 공연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gallery숍 '공감·공유' 김철규 개인전

오는 10월~14일까지 gallery숍 전시공간지원 기획 '공감·공유' 김철규 개인전이 열린다.

김 작가에 따르면 인체주름은 결정돼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체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름은 삶의 리얼리티이며 한 인생이 살아온 긴 시간의 기록이고 그 누구의 권여가 없는 진실의 흔적이다. 주름표현은 죽음의 허무함을 논함이나 주름의 인지를 통해 삶의 변화와 확장을 논하려는 것이며 또한 주름은 인간에게 주(醜)함의 인식을 넘어 주름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의 재해석을 통해 미(美)로 인지되었을 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휴머니즘이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주름의 확장된 개념인 주름의 인지, 자연으로의 확장, 생활의 흡수로 구분해 기획했다.

gallery숍의 전시기획 '공감·공유'는 전시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작품을 통한 공감과 공유를 원하는 작가의 신청을 받고, 소정의 심의 후에 선정된 작가의 전시를 진행한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30분~오후 5시 30분이고, 토요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시된다. /장은성 기자



제23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 수상작 전시회가 이달 진행된다.

##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 수상작 전시

1차 - 18일까지, 2차 - 24~28일

남원시는 전통문화 계승 및 남원목기 우수성 홍보를 위해 주최한 제23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 수상작 전시회를 진행 중이다.

1차 전시회는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5일부터 18일까지이며, 2차 전시회는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전시되는 작품은 약 40여점으로 옷칠 목공예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 브랜드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매년 개최된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은 전국 공예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해마다 그 규모와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하고 새로운 작품의 발굴과 더불어 신진작가의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10~13일

식물 세밀화 교실 참가자 모집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관장 박진호)은 식물 세밀화 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며,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일부터 주 1회씩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전 과정을 마친 후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https://nhm.jnu.ac.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nhm@jnu.ac.kr](mailto:nhm@jnu.ac.kr))로 보내면 된다. /정은성 기자

## '한국의 서원' 온라인에서 만나요

국립전주박물관 '서원,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다', 온라인 해설 준비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정상기)은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한 특별전 '서원,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다'를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해설을 준비했다고 5일 밝혔다.

개구무늬 김선정씨와 리포터 박경림씨의 재치있는 입담과 함께 박물관 담당 학예연구사의 깊이 있는 설명이 어우러진 이 콘텐츠는 전시를 직접 관람한 관람객들에게는 전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로, 방문하지 못한 관람객에게는 전시장을 방문해서 관람한 듯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온라인 전시해설에서는 국가가 서원에 내린 사액현관, 각 서원에서 모신 대표 유학자의 초상과 그들의 정신이 담겨있는 유품, 서원 입학과 교육 과정뿐 아니라, 후배 선비들이 서원을 방문하여 남긴 그림과 글, 책과 책판을 보관한 서원의 보물창고 장관각을 볼 수 있다.

또한 만인의 뜻을 모아 왕에게 전달한 선비들의 사회 참여와 정신을 담은 만인소, 현재까지 이어지는 서원의 제향 의례 등 서원과 선비에 관한 종합적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서원,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다'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 해설은 박물관 누리집(<https://jeonju.museum.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온라인 전시 영상의 한 장면

## '익산 미륵사지 해설서' 발간

국립익산박물관 신상호 초대 관장이 세계유산 미륵사지의 역사가 담긴 해설·감동 그리고 시와 풍경이 있는 세계유산 익산 미륵사지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발간한 책은 신상호 관장이 익산에 부임해 국립익산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는 과정과 일 년여 남짓 미륵사지의 사계를 관찰하고 남긴 자작시와 풍경을 담아 엮은 감성 충만한 해설서이다.

책에 실린 미륵사지 풍경은 매일 오전 8시 전후, 오후 6시 전후의 모습을 담고 있다. 또한 유물과 역사기록 속의 미륵사와 유적 발굴조사, 석탑 보수정비, 국립익산박물관 속의 미륵사지를 소개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